

“연말연시 제발 음주운전 만큼은 삼가자”

광주·전남 5년간 44명 사망·7,306명 부상 “송·신년 모임서 과도한 술 문화 개선 필요”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전남에서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매년 10여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있어 음주운전 단속 뿐만 아니라 음주에 대한 계교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

주·전남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3,813건(2014년 905건, 2015년 861건, 2016년 762건, 2017년 679건, 2018년 11월 기준 606건)으로 매년 8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는 2014년 1,785명(사망 10명, 부상 1,775명), 2015년 1,657명(사망 12명, 부상 1,645명), 2016년 1,511명(사망 9명, 부상 1,502명), 2017년 1,235명(사망 9명, 부상

1,226명), 2018년 1,162명(사망 4명, 부상 1,158명) 등이다. 5년간 7,350명(사망 44명, 부상 7,306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연말연시 각종 모임 및 회사 회식 자리에서의 과도한 음주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계다가 최근 운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있어 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회사원 박 모씨(29)는 “회식을 하다 보면 술자리가 길어지고 보통 새벽 2~3시를 넘긴다”면서 “상사들이 회

식이 끝나면 대리비를 주며 대리부르고 가라고 하지만 몇몇 선배들은 ‘늦은 새벽엔 단속 없으니까 잠깐 눈만 붙였다가 운전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운창호법이 최근 통과했지만 이를 모르는 선배들도 있어 대꾸하지 못한 적이 여러번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들은 새롭게 변경된 도로교통법 숙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창호법의 핵심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알코올 0.03%로, 가중처벌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강화한 것이다. 최근 투스트라이크 아웃이 44%나 되는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유독 송년회 등의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이 되면 단속 시간을 피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대낮단속, 음주단속 강화 등의 경찰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음주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자만 다치는 경우보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찬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 -6~6	흑산도	☁ 2~6
담양	☁ -5~7	구례	☁ -8~7
화순	☁ -6~8	곡성	☁ -7~7
영광	☁ -8~5	완도	☁ -3~8
함평	☁ -5~7	강진	☁ -4~8
무안	☁ -4~6	장흥	☁ -5~8
영암	☁ -6~7	해남	☁ -5~7
진도	☁ -3~6	고흥	☁ -6~8
신안	☁ -5~7	보성	☁ -7~7

일출 07:30 일몰 17:20
월출 09:42 월몰 19:54

목포	만조 03:31 16:19	여수	만조 10:56 22:48
	간조 08:51 21:33		간조 04:14 17:01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전두환 신군부 전략적 쿠데타

기록관, '5·18 광주는 기획되었나' 주제 포럼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해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장악을 위해 전략적으로 다단계 쿠데타를 감행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전두환의 정권찬탈은 빠른 시간에 이뤄지는 일반적 쿠데타와 달리 당시 정치·사회적 조건상 '12·12에서 5·17에 이르는 상당기간에 걸친 다단계 쿠데타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고, 선제적 조치로 광주를 강경 진압했다'는 주장도 대두됐다.

9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지난 8일 '5·18 광주는 기획되었나'를 주제로 5·18 광주정신 포럼이 열렸다.

추대 등이다.

손 교수는 "1980년 5월 광주는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 기획한 다단계 쿠데타의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80년 5월 광주는 쿠데타의 일부로서 넓은 의미로 기획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군부가 5·18을 의도했다는 좁은 의미의 기획설은 아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1980년 당시 광주에는 신군부의 '전략적 선택'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립광주박물관 개관 40주년 국립광주박물관 개관 40주년을 맞아 8일 오후 박물관 광장에서 독일 세계 거리마술 대회에서 베스트 코미디상을 수상한 한국 코미디 마술사 Crazy Mr.J와 One man Band 이말공이 쇠사슬에서 탈출하는 마술·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교사들 “현행 교과서로는 5·18 제대로 못 가르쳐”

이명박 정부 이후 서술분량 대폭 축소

현행 역사교과서가 5·18민주화운동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지난 7일 '교과서 속 5·18을 말하다'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초·중·고교 교과서에 담긴 5·18 관련내용을 분석, 향후 집필 방향에 대한 제안내용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김경훈 광주교대부

설초등학교 교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초등 교과서에 5·18 서술분량이 대폭 축소됐다”며 “내용 역시 사건 자체가 불분명하고 부연설명이 없어 5·18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김보름 광주문화중학교 사회교사는 “계엄군의 무력진압을 중심으로 서술하다 보니 봉쇄된 광주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며 “그 시기에 있었던 광주시민들의 '자치공동체'라는 높은 가치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교사는 또 “앞으로 진상규명 과정이나 희생자 문제, 발표명령자 등 밝혀야 할 진실들에 대해 주목한 교과서도 필요하다”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치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5·18은 오래된 과거 속 이야기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종찬 기자

허위 정보로 장외주식 부당이익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 구속 기소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비상장주식(장외주식) 시장에서 허위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과 필립에셋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엄 회장 등은 무인가로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립에셋은 광주 등 전국 9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장외주식 거래, 크라우드펀딩, 보험 등을 관리했으며 수천억원대의 투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민 기자

여수 해상서 여성 2명 숨진 채 발견

여수시 거북선대교 아래 해상에서 2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2분께 거북선대교 아래 한 조선소 앞 해상에 사람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보내 숨겨져 있는 A씨(23·여)와 B씨(23·여)를 발견, 시신을 수습하고 병원에 안치했다. A씨는 울산에, B씨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목격자, 유가족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곽재호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고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역 현황

■ 동구	중양 223-2378 010-3635-1195
	충장 233-4123 010-7755-8824
	학운 225-0651 010-3640-2454
■ 서구	광천 374-2126 010-9602-2565
	쌍촌 372-6659 010-6636-2775
	화정 381-2156 010-4235-0902
	상무 372-7625 010-5013-3889
	풍암 681-3179 010-6634-5084
■ 남구	봉선 653-1920 010-9474-0212
	진월 653-6900 010-5662-7449
	월산 010-8245-1625
	남부 651-1833 010-2943-8016
	송하 010-8620-1925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 북구	운암 525-3761 010-6886-3761
	양산 574-3745 010-2646-3205
	오치 261-9461 010-3629-0146
	문흥 261-9462 010-7601-4480
	일곡 573-3200 010-9273-0105
	두암 264-7074 010-2684-6091
	중흥 433-1503 010-4601-2080
	북부 222-2524 010-2656-4543
■ 광산구	첨단 971-7374 010-3613-2312
	신가 952-4864 010-3648-2549
	월곡 952-1687 010-3612-1687
	우산 951-9954 010-5018-0024
	수완 959-1414 010-3101-2526
	송정 941-7070 010-3976-0123
	혁신 061) 331-8790 010-6791-7107

광산지사	010-3601-1102	담양지사	010-4154-8277	영암지사	010-4624-8409
목포(갑)	010-3272-2765	곡성지사	010-6764-6100	무안지사	010-3621-8989
목포(을)	010-3635-6777	구례지사	010-5431-4006	함평지사	010-3773-2522
목포(병)	011-632-0323	고흥지사	010-9151-2828	영광지사	010-8666-2882
여수지사	010-8648-1236	보성지사	010-3601-2060	장성지사	010-3666-1300
순천지사	010-2547-7890	화순지사	010-3666-5888	완도지사	010-5619-7020
나주(갑)	010-5617-2605	장흥지사	010-3613-6114	진도지사	010-3624-4777
나주(을)	010-3713-7458	강진지사	010-6646-1241	신안지사	010-4627-1472
광양지사	010-3622-9898	해남지사	010-8181-2627		

광주광역시 북구 세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 720-1080-82
편집국 : jndn@chol.com / 광고국 : jnmi1000@hanmail.net
동부권본부 대표전화 061) 743-4200 / 팩스 061) 743-4202 / endlessha@hanmail.net
서부권본부 대표전화 061) 285-9816 / 팩스 061) 285-9818 / jmsb1000@naver.com